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노동이사’ 선임되나

시, 3인 이사 외에 노동계 몫으로 추가 인선 검토 노동계 “광주형 일자리 사업 4대 원칙 지켜져야”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이사’ 선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대주주인 광주시·현대자동차·광주은행이 추천한 이사 3인 외에 추가로 노동계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일 열린 합작법인 출범식에 노동계가 불참하자 이용섭 광주시장도 노동계 의견을 들어 이사진을 넣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발기인 총회에 노동계가 불참한 것은 참석대상이 출자자 위주여서 초청하지 않았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국노동 등이 참여한 지역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단계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윤종해 한국노동 광주본부 의장은 전날 ‘5기 노사민정협의회 출범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 5기가 발족하면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불응표는 마침표가 될 것이다”며 “법인이 설립되면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이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은 ▲적정임금 ▲적정노동 ▲노사책임경영 ▲원하정관

개선 등이다. 윤 의장은 “4대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상생 경영이다”며 “노동계와 신설법인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이사제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법인 정관에 이사직은 주주가 추천하는 인사로 하기로 되어 노동계가 반대하는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를 막기는 어렵다.

시는 전남 총회에서 선임된 박광태 대표이사와 논의해 남은 2명의 이사선임여부를 결정하고, 추가로 이사를 뽑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된다”며 “2021년 양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합작법인 설립 이후 진행되는 사항은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릴 수 없다. 여론을 수렴해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전남화랑훈련 합동세미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19년 광주전남화랑훈련 합동세미나에서 통합방위위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소영민 제31보병사단장, 이성열 제3함대사령관, 김병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등 통합방위위원 250여명이 참석해 화랑훈련 계획과 기관별 과제를 토의했다. /전남도재공

도, 추석 앞두고 축산물 안전성 강화 소·돼지고기 등 수거 위생·신선도 집중 검사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육류수요가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축산물 안전공급을 위해 관내에서 유통되는 소·돼지고기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수거검사 대상품목은 전남 22개 시·군 축산물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220곳의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소·돼지고기 식육·포장육 등이다. 110건 이상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중점 수거검사 항목은 세균수·대장균·휘발성 염기질소 등 식육위생 지표가 되는 항목이다. 세균수 및 대장균은 위생지표균으로서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위생수준을 나타낸다. 휘발성 염기질소는 식육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정지영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육류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자칫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남산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축산물 유통 및 판매 관련 영업소에서는 축산물 취급·보관과 관련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오늘 도시재생 거버넌스 학술대회

광주시, 지역 상생방안 모색

광주시는 22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학회, 한국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공동으로 ‘자치분권시대,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광주와 서울·대전·대구·경기도 광역도시재생센터가 협력해 시·도별 도시재생 거버넌스 현황 및 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도시재생의 구심점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공통 학술대회는 ▲최형선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경영지원실장의 ‘서울시 도시

재생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최영은 대구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대구시 도시재생 거버넌스 유형과 사례’ ▲안평환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의 ‘광주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역할과 방향성’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각 주제발표 후에는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이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윤준우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권순형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태일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성현 대구 중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찬돈 경운대 교수, 오세규 전남대 교수, 류영국 지오시티 대표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이뤄진다. /황애란 기자

전남 야영장 안전관리 부적정 무더기 적발

도, 불법 가설건축물 등 원상복구 명령

전남도는 하절기 캠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야영장 안전관리실태를 표본 감찰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인·허가 부적정 등 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처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표본감찰은 5개 시·군 22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안전감찰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주요 내용은 자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3건, 비상 손전등 및 비상용 발전기(배터리) 미비치 10건, 매점 내 폭죽 판매, 구급약

품 미구비 등이었다. 야영장과 인접한 계곡·급경사지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제한이나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관리 소홀도 4건이나 됐다.

안전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야영장 인허가 실태 주요 부적정 사항은 불법 농·산지 전용 5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1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2건, 불법 용도변경 2건 등이다. 해당 시·군에 원상복구, 고발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박종필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에 국가안전대진단 등 세 차례 연속해 야영장 안전점검을 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안전기준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경시하고 사익만을 우선하는 안전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일부 시·군의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결과에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하반기에 모든 시·군으로 안전감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투자 하실분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무안~중국 연길 하늘길 열렸다

제주항공 취항식...매주 수·토요일 운항

전남도는 제주항공이 2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 연길 노선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취항식에선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김재천 제주항공 부사장 등 항공사 관계자, 전남도, 무안군 관계자가 참석해 승무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연길 신규 취항을 축하했다.

연길 정기노선은 무안에서 오전 10시 10분 출발해 11시50분 연길에 도착하고, 돌아오는 항공편은 연길에서 낮 12시50분 출발해 오후 4시40분 무안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매주 수·토요일 운항한다.

연길은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다. 백두산 관광의 관문이며 중국 속의 작

은 한국으로 불린다. 중국과 예전 한국의 느낌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여행지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연길은 모야산 산림, 진달래광장, 중국조선족민속원, 공룡박물관 등 볼거리가 가득해 최근 여행객이 늘고 있다.

이상훈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제주항공의 연길 정기노선 취항이 최근 일본 노선 감축·중단에 따른 항공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10월께 장거리 노선도 신규 취항하도록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매각 공고 (3차)

1. 입찰내용 : 발파암 매각
2. 매각물건의 표시
 - 가. 적치장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일월 (보성-임성리 5공구 현장)
 - 나. 매각예정수량 : 162,956m³(자연상태)
3. 입찰방법 : 일괄 매각 입찰
4. 현장설명 : 생략(문의 061-532-9212)
5. 입찰일시 및 장소
 - 가. 입찰등록 마감일 : 2019년 8월 23일(금) 14:00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8월 23일(금) 15:00,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6. 입찰참가자격
 - 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견적서를 시한 내에 제출한 자
 - 나. 골재취업, 골재선별 및 파쇄업 허가/등록,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득하여 업을 영위하는 자
 - 다. 국제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규정에 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 라. 기 암매각 관련 협약 위반업체 제외
 - 마. 동 사업구간 낙찰금액 확인 및 동등 이상 제시금액 업체 입찰 참가 허용
 - 바. 입찰일 현재 당 현장 내에서 운반중행중인 업체는 제외
 - 사. 관내(해남군, 영암군, 강진군)에 아적장 및 처리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7. 낙찰자 결정방법
 -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발파암 매각금액 등 경제성 검토결과로 낙찰자 선정
 - 나. 경제성 검토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되거나,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시, 기한 이내에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후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8. 기타 특약사항
 -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해야 함.
 -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적서 제출시 같이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반출 전 매 20,000m³ 마다 낙찰금액 선납 후 반출 하여야 함.
 - 라. 상차, 운반, 안전, 환경, 민원관리, 관련 인허가 비용은 수요처 부담으로 견적하여야 함.
 - 마. 적지 후 반출 요구시 즉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바. 암버력 처리시 불순물 처리비용을 포함한다.
 - 사. 1일 발파암 1,000m³ 이상 반출하여야함.
 - 아. 상기 매각예정수량은 발주처 및 현장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발파암 반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성-임성리 제5공구 건설사업관리단 (☎ 070-4458-7567, 7568)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담당자 (☎ 061-840-5136)

2019년 8월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남매일 인증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임야

삽니다.010-6834-7400

※ 맹지사절/신속처리 ※